

# 정운찬 총재 “새 사무총장 선임 최대한 서두를 것”

## 새해 첫 KBO 실행위... 단장들과 상건례

단장들 “수익모델 창출·산업화 앞장서달라”  
FA 제도 보완은 운영팀장 회의서 논의키로

KBO 정운찬(71) 신임 총재와 10개 구단 단장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9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열린 새해 첫 KBO 실행위원회(단장회의)에서다. KBO 사무총장이 공식인 까닭에 단장직 재임기간이 가장 긴 두산 김태봉(59) 단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정 총재의 인사말과 단장들

의 건의 및 질의 형태대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정 총재는 실행위원회 직후 인근 식당에서 단장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의견을 경청했다.

정 총재는 단장들과 상건례였던 만큼 일일이 인사하고 통성명 후 “새 사무총장 선임을 최대한 서두르겠다. 유능한 분을 발탁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정 총재는 3일 열린 취임식에서 “갑자기 총재에 취임하게 돼 적임자(사무총장)를 찾는 데 시간이 촉박했다”며 “사무총장 인선에 외부 입김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공모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단장들도 첫 대면인자리 현안을 거론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의 실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정 총재에게 당부했다. 정 총재가 취임식에서 밝힌 대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프로야구의 산업화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구단들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회의와 식사시간 내내 분위기는 부드러웠다.

새해 첫 실행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KBO의 지난해와 새해 살림살이를 포괄한 예·결산이었다. 조만간 소집될 KBO 이사회(사정회의)에 앞서 단장들이 먼저 주요 항목을 살펴본 것이다.

김태봉 단장은 “예·결산에서 특별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다뤄질 것으로 보였던 프리에이전트(FA)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 대신 10개 구단 운영팀장 회의에서 먼저 FA 규정 전반을 실무적으로 점검하고 토론한 뒤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KBO와 10개 구단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FA 제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취득시점 및 방법, 등급제, 보상금 및 보상선수 등 각종 제반 사항을 올 한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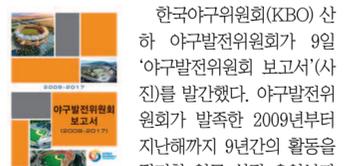


KBO 정운찬 신임 총재는 9일 10개 구단 단장과 처음 만났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 사무총장에 대해서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사진 | 뉴스



프리에이전트(FA) 김주찬~정근우~최준석~채태인~이대형(왼쪽부터)은 아직 새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준석, 채태인, 이대형은 ‘보상선수를 받지 않겠다’는 원 소속팀의 공개발표 이후에도 공개적인 구애가 없는 차이를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KBO, 야구발전위 보고서 발간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야구발전위원회가 9일 ‘야구발전위원회 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야구발전위원회가 발족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업무 실적 요약본과 야구발전위원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연구한 연구보고서 4편이 담겼다.

업무 실적 요약본은 야구 인프라 개선, 야구 저변 확대, 신규 구단 창단, 출판물 발간 등 그동안 야구발전위원회가 축적한 야구 관련 자료와 연구를 통해 한국 야구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2017년 연구보고서에는 성균관대 심리학과 김수안 교수의 ‘심리학적 관점으로 본 유소년야구의 질적 향상 방안’, 내내정형외과 박진영 원장의 ‘유소년야구 선수의 부상’, 고려대 경영학과 유용근 교수와 고려대 G MBA 학생 4명의 ‘KBO 플랫폼 활성화 방안’, 김창식 미국 변호사의 ‘스포츠 관련 미국 스타트업 사례’가 실렸다. 보고서는 KBO리그 10개 구단과 야구 관련 단체 등에 배포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꽂꽂 얼어붙은 FA 시장...바젠세일 없이는 강제은퇴?

고액 연봉 부담...FA 8명 아직 계약 못해 냉혹한 시장 논리에 자칫 'FA 미야' 위기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의 바젠세일이 없는 한 매우 힘든 상황이다.”

프리에이전트(FA) 중 아직 새 팀을 찾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A 구단 실무자의 말이다. 겨울 추위가 절정이어서인지, KBO 스토브리그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빅5’ 계약이 마무리된 FA 시장은 더 차갑게 꽂꽂 얼어붙었다.

이번 스토브리그 역시 대형 계약이 줄을 이었다. 역대 세 번째 100억원대 계약자인 김현수는 LG와 4년 총액 115억원에 사인했다. 총액 80억 원 이상 계약만 5건이었다. 수 백 억원이 오간 계약이지만 쓸쓸한 현상은 어느 해 보다 컸다.

몇 해 전까지 국가대표 리드오프였던 이종욱이 NC와 맺은 1년 5억원 잔류계약은 구단들의 냉철한 평가를 상징한다.

9일까지 아직 8명의 FA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했다. 그 중 김주찬은 KIA와 계약기간

을 놓고 막바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자원으로 보기 어렵다. 한화 소속이던 정근우와 안영명도 원 소속구단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우완 불펜 투수 김승효도 두산 잔류가 유력하다.

실질적으로 우타거포 1루수 최준석(전 롯데), 3할 타율이 가능한 1루 좌타자 채태인(전 넥센), 외야수 이우민(전 롯데), 빠른 발이 강점인 외야수 이대형(전 kt)이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구단의 편이다. 선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최준석, 이우민은 롯데와 재계약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 이우민은 코치제의까지 마다하고 FA를 선언했다. 롯데는 두 선수를 예우하는 의미를 담아 타 팀과 계약시 보상선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다. 최준석은 흥행생산능력이 뛰어나지만 만

35세의 나이, 풀타임 출전능력 등에서 점수가 낮다. 36세가 된 이우민은 백업 외야 자원으로 분류된다. 각 팀이 세대교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입지가 매우 좁다. 채태인은 넥센과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 보상선수를 받지 않겠다는 구단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타 팀과 계약도 반기는 구단 운영방향이 답겨져 있다.

이후준이 은퇴한 NC가 베테랑 1루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영준 단장은 “현장이 공동체 세대교체를 진행했다. 외부 FA 영입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릎부상으로 전반기 복귀가 불투명한 이대형도 kt와 협상이 난항이다. kt 역시 보상선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 구단 경영진은 “이미 상당수 팀들이 올 시즌 전력구성을 마무리했다.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까지 끝난 팀이 대부분이다. 보상선수가 없다

고 하지만 대부분 고액연봉자다. 연봉의 300%인 보상금도 부담이 따른다. 연봉을 대폭 낮추고 1년 등 단기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타 팀과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최준석은 보상금이 12억원, 채태인과 이대형은 9억원이다. 현 시점에서 30대 후반인 이들에게 장기계약과 높은 계약금을 안길 팀은 없는 상황이다. 냉혹한 현실이지만 당연한 시장논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FA를 선언했지만 끝까지 계약에 실패해 강제 은퇴한 사례는 이도형, 노장진, 차병주 등이 있었다. 최영필의 경우 2010시즌 후 FA를 선언했지만 계약에 실패한 뒤 해외 독립리그 등에서 뛰며 현역연장 의지를 다졌다. 1년 뒤인 2011년 시즌 후 한화가 보상관리를 포기하면서 SK에 입단해 2017시즌까지 뛰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KBO 주요행사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는 9일부터 2018 KBO 주요행사 운영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갔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2018년 KBO가 주관하는 주요행사인 KBO 올스타전 및 퓨처스 올스타전, KBO 한국시리즈,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운영 및 관리 대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6일 오전 11시30분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KBOP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권민 | 고희정 기자 ice@donga.com



# 명품 브랜드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 피로를 흡수하는 신발, 걸을수록 편안해진다!!

한리도 걸어도 발이 편안한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건강슈즈

**ALL IN ONE (올인원)**

발의 형태에 꼭 맞는 발의/인공 인공 가죽/미끄러짐 방지 미끄러짐 방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폴로클럽에서 인도어와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한 전천후 올인원 천연가죽 남성화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트래킹화에 기능성과 디자인을 보강하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신을 수 있는 일명 만능 신사화로 탄생한 것이다. 쿠션감이 좋은 인soles를 내장하여 장시간 걷는 것은 물론 등산, 트래킹이나 험한 작업, 운동 등이 가능하며 직장인들의 일상화로도 인기가 높으며 신고 벗기 편한 고급 원터치버튼을 내장하여 견고함을 더욱 보강하였다. 100%천연 소가죽을 사용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미끄러짐 내장하여 심한 운동이나 작업시에도 충격을 흡수하여 발이나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특허받은 초강력 미끄러짐 방지 미끄러짐을 채택하여 무리없이 등산이나 트래킹이 가능하며 산업현장이나 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도 미끄러짐 걱정없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

NAVER **최저가격** 진수테크쇼핑 등 추천



모델명 PA-3 (브라운)

모델명 PA-1 (블랙)

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제품 하자시 6개월 무상 A/S

신사가 신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신발, 안전하다! 편안하다! 우아하다!

- 100% 국내 장인의 손길로 제작
-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 100% 천연소가죽, 탁월한 내구성
- 뒤틀림, 미끄러짐 방지하는 미끄러짐 방지
- 원터치 록(LOCK) 버튼, 신고 벗기 편함
- 특허받은 깔창의 자체 교정 효과
-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이 발을 건강하게
- 3중 특수소재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
- 향균, 방취, 통풍 기능으로 발을 늘 쾌적하게
- 정장부터 등산복까지 어울리는 다기능화

1켤레 228,000원 → 128,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 할부혜택!

사이즈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http://www.j1234.co.kr)

제품구입 문의전화 :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